

메인배너

인권선언 웹진 7호

by 인권선언416 posted Oct 16, 2015

시월에도
폴뿌리 토론을 . .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웹진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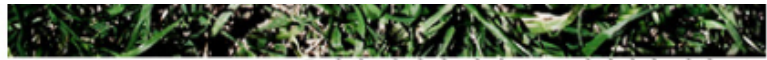
***웹진 글을 읽으시려면 글 하단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416인권선언에서 발행한 일곱 번째
웹진입니다(2015/10/15) 브라우저에
서 잘 보이지 않으면 클릭해주세요.

시월에도
폴뿌리 토론을 . . .





416인권선언에서 알려드립니다

추진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4.16인권선언 제정특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을 비가 내리고 나니 기온이 확 떨어졌습니다. 추진단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월 한달간 많은 분들이 풀뿌리 토론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10월에도 11월에도 풀뿌리토론회의 열기는 계속 될 예정입니다. 아직 풀뿌리토론회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서 풀뿌리토론회를 시작해 주세요:) 지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풀뿌리토론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분들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메뉴얼을 보내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메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4.16인권선언 제정특위 드림

풀뿌리토론회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416인권선언을 함께 하는 추진단이 궁금해!



추진단 니위님

"300명 넘는 추진단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까 고민했는데, 연락 돌려보면서 느끼는 건 다들 적극적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힘 얻을 때가 더 많지요.



추진단 양한웅님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악을 행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비라고 봐요. 세월호는 자비의 문제로 풀어야합니다."



추진단 최현모님

"진실을 가리고 왜곡시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을 상대로 소리질러 외치며 싸울 수 있는 권리.. '서로 믿고 의지할 권리' 라고 생각해

우리 동네는 지금 풀뿌리토론중

추진단 여러분께 전국에서 열리는 풀뿌리 토론회를 매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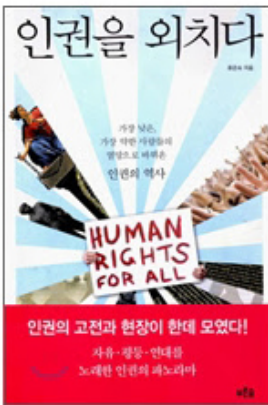
10월 둘째 주

10.12(월) ~ 10.18(일)

- 10/12/월/ 인권교육센터 '들'
- 10/12/월/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화인 모임 X 이지원, 오선희 추진단
- 10/13/화/ 안산 부곡초등학교 X 송정근 추진단
- 10/14/수/ 경남 진주 X 김수영 추진단
- 10/14/수/ 4.16인권선언 반민권박회의 X 최예륜 추진단
- 10/16/금/ 세월호 부친대책위 X 이웅석 추진단
- 10/17/토/ 경기 안양지역 X 김계봉 추진단

416인권선언 문:416declaration@gmail.com

416인권선언 쉽게 이해하기: 인권책 추천



인권을 외치다: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뀐 인권의 역사

한권씩 소개해 드려요

저자 류은숙 | 푸름숲

<세계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 <독립 선언서> 등 인권의 기념비가 된 문헌들을 소개하면서 문헌이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언은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텐션 플리즈!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을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이종철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이후의 '다른 교육'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가 난다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오세범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미안함을 넘어서니 혜원

4.16 인권선언 운동 9-10월 활동 경과 보고



Copyright © 2015 416인권선언. All rights reserved. 416인권선언에서 보내는 추진단에 보내는 웹진입니다.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하단의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수신방법설계, 수신거부

This email was sent to pucharemacha@gmail.com
[why did I get this?](#) [unsubscribe from this list](#) [update subscription preferences](#)
4.16declaration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 · (정양빌딩) 2층 · Seoul, 11 135-600 · South Korea

***웹진 글을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진행상황>

풀뿌리토론 고양파주지역 유왕선님 후기http://416act.net/decl_achive/8085

풀뿌리토론 진보넷 벨라님 후기http://416act.net/decl_achive/8090

<추진단인터뷰>

추진단인터뷰 #나위님http://416act.net/decl_achive/8077

추진단인터뷰 #양한웅님http://416act.net/decl_achive/8080

추진단인터뷰 #최현모님http://416act.net/decl_achive/8082

<관련 글 읽기>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_이종걸<http://hr-oreum.net/article.php?id=3121>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이후의 '다른 교육',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가_난다<http://hr-oreum.net/article.php?id=3114>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_오세범<http://hr-oreum.net/article.php?id=3113>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미안함을 넘어서니_혜원<http://hr-oreum.net/article.php?id=3109>

4.16 인권선언 운동 9-10월 활동 경과 보고 http://416act.net/decl_achive/8092

[웹진7호] 고양파주 풀뿌리 토론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Oct 14, 2015



세월호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을 마치고

고양파주 풀뿌리토론후기

유왕선

간담회장으로 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다. 문화광장과 화정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던 모습,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진지한 토론, 찬바람 불던 팽목항, 대전 시내를 가로지르는 행진, 김지영 감독의 항적도와 관련된 의문들, 평화기행팀과 방문한 안산 분향소. 어쨌거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내 삶의 상당 부분은 세월호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광화문에 가던 안가던 관계없이 내 생각의 한 부분이 되었고, 발걸음을 이끌었다.

유족들이 많이 오신다는데 썰렁하면 어쩌나 하는 준비팀의 걱정과 달리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안면이 있는 분들도 꽤 있었다. 예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았던 분들도 몇몇 눈에 띄었지만 세월호 서명전을 하면서 처음 인사를 나눈 분들이 대부분이다.

조를 나누고 진행팀의 안내에 따라 토론을 시작한다. 우리 조는 유가족 한 분을 포함해서 9명 그리고 엄마 품에서 토론 시간 내내 잠을 자던 아이가 두 명이다. 대부분이 초면이고 연령대로 많이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서 인지 토론은 어색함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된다.

토론 중에 한 분이 유가족에서 참사 당시의 감정을 말하게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냐고 한다. 한편으론 그 말에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유가족의 아픔과 분노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비단 세월호 유가족뿐

만 아니라 민간인학살이나 민주화운동 과정의 유가족,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고통에 찬 눈물에 공감하면서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고 유가족의 손을 잡아 위로하고 함께 거리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진다.

토론을 하면서 내 눈은 자꾸 잠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향한다. 오늘의 자리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며 인권선언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이다. 그 미래는 저 아이들의 것이다. 좀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처구니 없게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나 그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가 모인 까닭일 것이다.

이 간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단원고 2학년 4반 부모님들과 고양파주시민이 자매결연을 맺는다. 아마 고양파주 지역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과 그동안 교류가 활발했었던 듯 싶다. 혹여 활발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유가족에게도 든든한 힘이 되고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는 고양파주시민들에게도 책임감 있게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싶다. 아무튼 좋은 일이다.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한편으로는 좋은 분들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마음을 편하게 했지만 유가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세월호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점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권력 구조상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다만 반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위가 되도록 구성원들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유0형, 특수회생교사 가족
가족을 찾고 진실도 밝혀야 되고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웹진7호]진보넷 풀뿌리 토론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Oct 14, 2015

* 세월호 인권선언문 말하기, 참가자 베라미 후기글.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말해볼까요?"라는 말을 듣는데, 참 낯설었고 부끄러웠다. 순간 나는 부끄러운 감정을 들킬까 초조했고, 5분 남짓 쉬는 시간이 생기자마자 재빨리 최근 세월호 소식들을 검색했다.

부끄러움. 그 깊이는 진도 바다의 수심을 일순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미 꽤 깊었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정과 분노를 이야기하자, 부끄러움 속에 묻어뒀던 내 슬픔과 분노를 비롯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해서 묻어뒀다면 더 부패되어 이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터였다. 마치 저 깊은 세월호의 증거들이 지금도 계속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정, 두 번째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남득할 수 없는 점, 마지막으로 세월호 같은 대형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요구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나는 '불복종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인상적이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불복종할 권리'는 오히려 전제조건인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혼재되어있는 현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했다. 지적한 부분은 매우 명쾌했고, 타당하며 뼈아픈 얘기였다.

최근 과학계에는 '킬러 로봇'에 대해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1천 명이 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개발 반대를 외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인류를 돕기 위해 만든 로봇이 어떤 오류나 조작 따위에 휘말리는 것으로 위험한 로봇이 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 공상 속 로봇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석학들은 '킬러 로봇'의 문제는 처음에는 '킬러 로봇'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킬러 로봇'에게 우리가 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 점을 매우 우려했다. 나는 이 석학들의 성명이 마치 은유적인 경고장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킬러 로봇'의 위험성은 흡사 모든 폭력기구마저 독점한 채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우리의 '정부'이자 '국가'와 매우 유사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킬러 로봇'과도 같은 '킬러 국가'에게 주객이 전도된 채 소외당하고 있다. 국민은 겨우 시스템에 불과했던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통제능커녕 그 시스템의 결함으로 발생한 선박 사고로 국민이 유명을 달리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미 너무나 거대해져버린 통제불능의 시스템인 국가는 계속해서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가의 통제권을 자본에 빼앗긴 국민은 이 국가 시스템을 어디에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수준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일하는 국민인 노동자가 노사정합의문에 항의하러 국민의 회의 기구인 국회에 항의하러 갔다가 입도 뿍끗 못하고 노예처럼 끌려 나오겠는가.

자본은 어느 틈엔가 공동체의 꼭대기를 선점했다. 그리고 자본은 '킬러 국가'를 숙주 삼아 그 근본의 특성 그대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가는 미디어와 공권력을 잠식하고 이미 국민을 지배하는 '킬러 로봇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나마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카드인,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마저도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본래 주인이었던 국민의 위치는 오늘날 너무나도 참담하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모든 권리보다 '경제 성장'을 선택했던 대가는 혹독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입에 '흙수저'를 밀어 넣고 하루를 더 살아내는 사명을 다하는 데만 해도 오늘은 너무 길고, 분주하고 피곤하다.

텔레비전은 '오늘 뭐 먹을지'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먹방 방송이 판을 치게 떠들면서도,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역시 국가처럼 근본적으로 자본에 잠식당한 미디어는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 논리를 정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규모가 큰 사

건, 큰 사고일수록 더 중요하게, 크게 보도한다. 하지만 하인리히 법칙처럼, 세월호나 사대강 사건들 같이 거대한 공공의 문제는 그 원인이 되는 작은 문제들이 항상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는 그것들을 단신으로 조차도 보도하지 않는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들이 작은 실천으로 애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결국 큰 문제가 되도록 방조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무수히 많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마침내 실마리처럼 작은 원인들이 모두 뭉쳐 만들어진 거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는 국민이 이미 문제의 크기 자체에 압도되어 좌절하게 되기 쉽다.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고, 재발방지는 유아무야된다. 그렇게 자본의 계획 속에 탄생하고 방치된 국가적 문제는 국민들에게 복구할 수 없는 치명상을 남긴다. 그 뒤 남은 국민들은 예고된 더 큰 재난 사고의 새로운 실마리가 되어 살아간다. 재난은 '보도'되지 않고 '영화화'되고 앉았다. 세상은 끝을 향해 굴러간다.

국민들 개개인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해 보이는 큰 규모의 문제만이 보도되는 나라.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국가 부채 600조를 넘어서는데도 부모의 밥그릇을 빼앗아야만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법을 바꾸는 나라. 이제는 남이 아니라 가족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라는 나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넘치는 나라.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빚으로 안겨주는 나라. 세월호 사건에 슬퍼하며 거리로 나왔다고 벌이도 변변찮은 대학생에게 벌금을 수천만 원을 때리는 나라. 모든 노동자가 이 나라 굴뚝이란 굴뚝에 다 올라가 있고, 평화, 환경, 각 분야 운동가들은 계속 재판을 받는 나라. 이 나라는 이성을 갖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의 평범한 나라가 아니다. 그저 각자도생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이념이며,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을 태어나자마자 생존법칙으로 배우는 잔인무도한 전쟁터일 뿐이다. 누가 전쟁터에서 상식을 말하는가? 우리들 중 누가 살고 싶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이 끔찍한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는 팔 하나 다리 하나씩 잃은 패잔병이니, 옆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몇 날 며칠 흐느낄 정신이 어디 있겠는가.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인간이 공포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때는 그 공포가 어디까지나 허구인 '영화'이거나 그럴싸한 '남의 이야기'일 때뿐이다. 이 전쟁터에서 곧 자신의 이야기가 될 실제적인 '공포 증언'은 그저 피하고만 싶은 실제일 뿐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영상이나 이 땅에서 이유 없이 서럽게 사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그리고 나와 내 부모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앞이 캄캄하다. 그럼에도 그 캄캄함을 이유로 나 역시 이 잔인한 세상의 공범으로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순간 또다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흘리던 눈물을 그저 속으로 삼키게 된다. 꿀꺽꿀꺽 삼킨 눈물이 만든 내 안의 부끄러움의 바다. 이 무력함과 흙수저의 무게를, 나는 또 그 부끄러운 짠 내가 가득한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전쟁터에서 굶주린 짐승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부모와 이웃의 내장을 씹고 싶어질 때, 나는 다시 그 부끄러움의 바다로 달려가 벌처럼 그 짠 물을 마셔야만 한다.

하지만, 이미 짐승이 되어 살아있는 이웃의 내장을 찢어먹는 저 자본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자본 앞에서 겨우 개미 똥보다도 더 작고 미미한 생명이, 그래도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나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점점 그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이라도 흥내내어 살겠다고 하는 이 짐승같은 나의 생의 욕망을 어찌해야한단 말인가.



[웹진7호]추진단 인터뷰 18. 나위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Oct 14, 2015

[웹진7호]추진단 인터뷰 18. 나위님



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인권선언 추진단이자 실행팀을 함께하고 있는 나위라고 합니다.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2. 인권선언에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올해 스물여덟인데 학생운동을 오래 했어요. 작년까지 학생운동을 하고, 올해 처음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학생 활동 마무리하고 3개월 정도 쉬었어요. 정말 특별한 일 하지 않고 그동안 못했던 일 하고, 못 쉬었던 거 쉬고, 배워보고 싶은 거 배우며 지냈어요. 그 기간에 인권선언 제정위 함께하고 계신 분이 416 관련해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기간도 2~3개월 정도일거라고 하고, 그때가 쉬는 기간이라 시간도 많았고, 무엇보다 제가 세월호 관련한

부채감 같은 게 있어서 선뜻 하겠다고 했어요.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로 세월호는 다른 사회 문제와 달리 다가가기 무척이나 어려웠거든요. 광화문 농성장 한번 가는 것도, 집회 한번 참석하는 것도 뭔가 쉽지 않더라구요. 유가족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세월호 관련한 기사 같은 거 보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인권선언 활동 하기 전까지는 세월호 관련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없어요. 알게 되면 너무 슬프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오히려 더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채감이 있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뭐든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유 있던 시기에 실태조사단 제안을 받게 된거죠. 실태조사단 같이 하면서 인권선언 운동 준비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같이 하게 됐던거예요. 사실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인권선언 운동' 자체에 대한 고민이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서 한거라기보다는 세월호 관련해서 뭐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활동 하면서도 인권이라는 영역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인권선언 운동을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아, 이런 거 하는거구나" 하고 딱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실태조사 같이하면서 여기서 뭐든 하면 세월호 투쟁 관련해서 의미있는 활동을 길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3. 나에게 4.16인권선언이란?? 질문에 어떤 답변을 주셨고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억'이라고 썼어요. 저에게 인권선언 운동은 세월호 투쟁을 긴 호흡으로 이어가는 기억이에요. 참사 이후 1년, 500일도 지나고 벌써 두번의 추석이 지났네요. 짧지 않은 시간이 이미 지났고, 앞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질거예요. 그동안 특별법 제정, 시행령 폐기 등 당면 과제를 목표로도 치열하게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많겠죠. 그런 한편, 세월호 이후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같이 고민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말하잖아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대형 참사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세월호 투쟁에 머뭇거렸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월호 투쟁을 한다는 게 뭘까,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뭘 해야될지 답을 못 찾아서요. 그런데 4.16 인권선언 운동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만들 수 있겠다,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제야 세월호 이후 사회를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어요.

4. 풀뿌리 토론에 실행팀 중에 가장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있으세요??

-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풀뿌리토론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끼고 있구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고민들은 정말 많죠. 한번은 유가족들과 함께 풀뿌리토론에 참여하게 됐는데,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00엄마라고 하며 이제 더이상 00엄마라고 불릴 일이 없어서 나 스스로 꼭 00엄마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불리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월호 투쟁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00엄마, 00아빠로만 불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길 듣고 아, 이런 의미셨구나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풀뿌리토론 하면서 기존에 사회운동이나 활동 해오셨던 분들도 나름의 경험 등을 토대로 소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거리에 나오게 된 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더라구요. 한 분은 정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싸우는 자리에 언제까지나 나만은 그분들 옆에 꼭 있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도 기억에 남았어요.

5. 실행팀에서 함께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혹은 힘든점이 있다면??

- 7.11 전체회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에 다같이 글을 읽었던 거, 전체회의 끝나고 사진 찍었던 거. 2차 전체회의는 더 많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은 많지 않아요. 300명 넘는 추진단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까 고민했는데, 연락 돌려보면서 느끼는 건 다들 적극적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힘 얻을 때가 더 많지요.

6. 4.16인권 선언이 어떤 선언이 됐으면 좋겠다나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점이 있다면??

- 많은 추진단 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선언을 위한 선언이 아닌 운동, 투쟁이 되길 바라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구요.

7. 추진단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 화이팅!!

[웹진7호]추진단 인터뷰 19. 양한웅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Oct 14, 2015

[웹진7호]추진단 인터뷰 19. 양한웅님



Q. 자기소개와 조계종 노동위원회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저는 현재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상근 대표이기도 하지요. 실은 KT에서 87년부터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죠.

조계종 노동위원회 활동은요. 원래 불교라는 종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실천적인 부분이 다소 약했어요. 물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는 민중불교 운동이 있긴 했지만 주로 민주화운동에 치중되었고, 민중·노동자·인권·장애인들의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쌍용자동차 문제가 발생했어요. 쌍차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조계종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2년에 노동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게 됐습니다.

Q. 이름은 노동위원회인데 세월호 대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단지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개념으로요. 그리고 국가적 억압과 폭력의 문제도 노동의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적인 책임의 방기 및 국가와 해당 주체들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당연히 노동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거죠.

Q.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통영이에요. 거기서 재난이나 어선 사고를 많이 본 사람이고, 또 수산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사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8천 톤짜리 배가 뒤집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8천 톤짜리 배가 넘어지지 않는데, 세월호는 멀쩡한 상태에서 넘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조타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실종자 가족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하고 있어요. 제가 대중들한테 발언할 기회가 있을때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04명이 죽은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이 일은 단순한 과적이나 조타수 실수 가지는 설명이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딱 배가 넘어지기 찰나에 예컨대 외부 물체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3등 항해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진술하길 “앞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은 물체가 배를 향해서 접근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려서 급변침을 했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 뒤로 그런 진술을 철회한 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묻혀버린 거죠. 이 앞에 나타난 물체가 무엇인지 우리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냥 뭐 검찰에서는 3등 항해사 잘못이고, 무리하게 급변침을 했다면서 조타 실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제 친구들이 배를 많이 타고 있어서 제가 수십 번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미친 사람 아니면 배의 조타를 그렇게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예요. 차로 비유하면 차가 달리는데 핸들을 90도 꺾었다는 것이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핸들을 꺾을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예요. 그런 부분부터 세월호는 의문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Q. 그렇다면 주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한 일이 많아요.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유민아빠 단식할 때 같이 단식을 31일 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3천배도 여러 번 했습니다. 3천배 한번 하는데 8-9시간이 걸리는데 시민들도 한 100명씩 동참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월호광장 내 법당도 두 달 정도 유지했어요. 스님도 계셨고, 노동위원도 있었고, 노동자들도 오시고, 매일 천배씩 두 달 정도 했죠. 지금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는 작년 6월부터 기다림의 버스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를 조계사부터 정부종합청사 인사혁신처까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네요.

Q. 노동운동을 오래하다 보면 인권선언에 대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416 인권선언에 함께 하게 되셨나요?

제가 노동운동만 했지만 인권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안정노동 철폐연대가 인권사랑방에 활동회원이기도 하고요. 같이 집회를 많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권운동에 있어서는 틈틈이 협력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세월호 문제는 당연히 인권의 문제니까 하게 된 거죠.

Q. 추진단 등록할 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는 보살이에요. 불 관(觀) 세상 세(世) 소리 음(音) 인데, 보살은 부처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죠. 불교적 색채를 떠나서 종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외받는 계층, 사회적 약자 그리고 반인권·반민주·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불교의 고유한 가치가 있지만, 하나의 인간이자 또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할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반인권·반민주·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국가적 폭력에 대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소외 계층을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일이 그 역할이죠.

Q. 다툼을 화해시키는 원효의 화쟁사상의 관점에서 세월호는 어떻게 화쟁할 수 있을까요?

화쟁은 한국 사회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아직 자본과 노동의 사회인데,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화쟁이 있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반민주적이고 물역사적 행위가 일어나는 마당인데요. 한국 현실에서는 자본가와 국가의 행위에 대해 꾸짖고 제동을 걸어주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할 말을 다 해줘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양쪽을 똑같이 저울질하고 화쟁하라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화쟁이란 단어는 한국에 맞지 않다. 약과 거대한 힘을 가진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꾸짖지 않고,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자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Q. 화쟁 대신 어떤 불교적 개념으로 세월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비죠. 부처님 말씀에 화쟁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건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거지. 자비는 최대한 선한 마음을 베푸는 건데. 내가 보기에 자비라는 말은 불쌍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악이나 힘으로 누르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월호는 자비의 문제로 풀어야합니다.

Q. 416 인권선언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따라 올해 12월 10일에 할 예정인데,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416 인권선언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세월호를 단순히 사고로 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일반 시민이든 운동하시는 분들이든 그냥 박근혜 책임이라고만 하고 있지. 이걸 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과 또 그 안에는 인권·안전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416 인권선언 준비가 활기차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월호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세월호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가·단체·노조 조직·풀뿌리 조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했으면 해요. 정말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교훈은 인권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웹진7호]추진단 인터뷰 20. 최현모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Oct 14, 2015



[웹진7호]추진단 인터뷰 20. 최현모님

1.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재단사람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현모입니다. 저희 인권재단사람은 '인권의 가치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인권활동가들의 친근한 벗이자 인권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2013년 시민들의 참여로 정부나 기업 등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권센터인 '인권중심사람'을 열었습니다. '인권중심사람'은 인권활동가와 시민들 누구나 모여서 인권을 생각하고 떠들며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7월 16일 구속된 박래군 활동가가 바로 이 '인권중심사람'의 소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지난해부터 인권활동가와 인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365기금'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인가요? 참사 이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잠을 자다가도 뼈득 눈이 떠지는 아무리 따져봐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다른 모든 분들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다가 바로 주체할 수없이 슬퍼지고 미안해지고 또 그러다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로는 어찌 표현할 수 없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지난 4월 초였죠. 정부가 어이없는 시행령을 드리밀며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상금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능욕하는 것에 분노한 유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삭발을 했던 그 날의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르네요. 그때 삭발을 마치고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는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다.'

3. 세월호 참사 인권실태조사에도 함께해주셨죠. 다양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와 같은 인권활동가들을 이끌었다는 말이 맞을 거 같아요. 참사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물기사분들을 시작으로 생존피해자들과 소위 '일반인 유가족'으로 지칭되었던 분들 그리고 진도해역 인근의 피해주민들과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잠수사분들을 만나가면서 유가족을 포함해서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기만과 차별을 여실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오해도 좀 있었지만 진실한 마음은 통하는 법이라고 저희가 만났던 분들도 활동가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빼앗긴 권리를 찾는 일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일이었기에 함께한 활동가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실태조사가 많은 피해자분들의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지켜져야할 권리는 '서로 믿고 의지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자들이 있죠. 진실을 가리고 왜곡시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잖아요. 갈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 틈에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 자들을 상대로 소리질러 외치며 싸울 수 있는 권리.. 그게 '서로 믿고 의지할 권리' 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존엄과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핵심이 '서로 믿고 의지할 권리'를 '확인'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방해하는 모든 불순분자들(?)을 상대로 싸워야겠지요.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해요.

4.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앞서 말씀드린 활동을 하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마음을 모아내서 존엄한 삶이 무엇인지 소리높여 외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진정 안전한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소리질러가며 자신의 바람을 말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라고 믿어요.

5. 416인권선언은 '함께삶'이라고 해주셨네요. 인권선언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또,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갈 추진단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들었고 스스로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가겠다고... 존엄한 삶.. 인권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요.. 그리고 그것은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가치이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함께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저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의 최고 가치라고 믿어요. 그래서우리가 만들어가는 인권선언은 '누군가로 인해 짊어지게 된 책임이 아니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당연히 누려왔어야 했을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해나가자구요.^.^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이종걸

트윗

좋아요 0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다를까?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그 험난한 바다 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유는 그가 이주민이고,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살아있는 이주민들과 기간제 교사들을 빈번하게 차별하더니, 원통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의 낙인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 돌아가신 이주민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7월 15일 <4.16 인권실태조사단>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이주민 희생자 가족들이 겪은 차별의 양상은 이렇다. 우선 희생자 유가족으로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다.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내린 결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가족과 정부 간 협의 과정에도 이주민 유가족은 참여할 수 없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통역지원조차도 유가족이 입국한 초기 열흘 정도에 그쳤다. 경제적 지원과 의료 지원 역시 부재했다. 시신이 수습되기를 기다리느라 발생하는 체류비용을 유가족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달했다고 한다. 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주민 유가족에게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받았으면서 왜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주민 유가족은 가족의 희생에 대한 슬픔을 지우기도 전에 한국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9월 9일을 시작으로 격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조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6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 맞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적 해석 결과를 받았고, 이에 힘을 얻은 두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은 6월 23일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7월 12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직 심사를 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및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사실상 반려와 다름없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7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성과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 일반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에 기간제 교사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순직 인정과 공무원연금 가입과는 관련이 없다. 단원고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정부 당국은 잘못된 법제도 규정을 이유로 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죽어서까지도 차별한 것이다. 차별이 없도록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2차 오체투지가 진행되었다. 필자도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두 기간제 교사 희생자와 이주민 희생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2차 오체투지에 함께 했다. 죽어서까지도 차별받아야 하는 이주민,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희생자 유가족은 그 차별에 대한 슬픔을 고스란히 마음속 깊은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요구해야 한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곳곳의 현장에서 차별과 부정에 맞서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하이디스 해고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참여했다. 이러한 차별과 부정의 현실을 더욱 알려야 하는 요증이다.

덧붙임

이종걸님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이후의 '다른 교육',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가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관련자료

-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이후의 ‘다른 교육’,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가 난다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세월호 참사와 교육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인권선언에서 교육권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를 '교육'과 연관 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 중 다수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세월호 참사라는 장면에서 교육 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들을 투영해보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교육권을 함께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수학여행 금지'였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에서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한 풀뿌리토론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이긴 줄 아니다 싶었던 것"을 이야기해보자고 한 적이 있다. 그때 생각났던 게 세월호 참사 이후 내려진 수학여행 금지 방침이었다.

나승일 당시 교육부 차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1학기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방침은 곧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었고, 각 학교와 학급에서는 이미 예정되어있던 수학여행을 2학기로 미루거나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배'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은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학생들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세월호 선장을 욕하는데, 학교에 안전대책 강화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분노의 맥락이 바뀌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일주일 후 아이들의 심경에 대해서 묻는 내 질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내뱉게 된 말은 "왜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현장학습을 못 가요?"이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시민들이 시위하듯이, 자신들을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심정이었다.

- 세월호 이후의 교육, '가만히 있으라' 외치는 자 누구인가 / 김환희 / 「오늘의 교육」 2015년 3·4월호, 62쪽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 대책?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위해 예정되었던 학교 단위의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것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체험학습 등을) 멀리 가지 말아야 하며 수학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이다. 또한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기까지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결정을 해나가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특히 학생들)은 그저 주어진 동의서에 동그라미를 써내야 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병대 캠프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짜/사실 업체라서 문제"라며 청소년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었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에는 학생회 단독 행사/오리엔테이션의 폐지를 검토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엔 수학여행을 금지했다.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이처럼 활동을 축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손쉬운'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정부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듯 '할 일'을 다른 기관에 떠맡기며 알맹이 없는 대책을 만드는 바람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특히 교육활동에 관한 것들은 더했다. 수학여행을 금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라. 이것이 정부가 내놓은 참사에 대처하는 답변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담론이나 교육의 방식과 내용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권리, 즉 교육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교육권이라고 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 정도로 인식하는 데 그치는 듯하다. 하지만 교육권을 교육을 받을 권리로만 한정 짓는다면 지금처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을 추가하는 식의 땀질처방만 이루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나 안전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이면 되는 걸까? 4.16 이후 '다른 교육'을 상상하자고,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표현하는 어른들의 아픈 반성도 돌아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교육의 문제를 청소년들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려는 모습은 찾지 못했다. 교육을 바꾸자는 흐름 속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학생·청소년들은 늘 교육을 받는 대상이었지 교육의 주체인 적이 없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은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인 동의서에 무조건 동그라미를 그려야 하는 상황과도 닮아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학생·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세월호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출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무엇을 빼고 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해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교육권을 보다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내용의 교육을 준비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지닌다면 교육권은 제대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안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 '생존수영강습'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등장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활동이고 필수 과제라 하더라도 그 강습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금 현실에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일상생활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성적순으로 반장 부반장을 뽑고, 학생·청소년들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교과서에서만 ‘민주시민의 자질’과 ‘사회참여의 의미’를 배운다면 그것이 의미있는 배움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참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거나 대처해야 할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또 해결과정에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고 어떤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교육. 실제 현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밀착하여 다룰 수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여러 맥락에서 교육권의 보장을 꿈꾼다면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아가는 것이 ‘다른 교육’의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학생·청소년들에게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교육적이니 꼭 달고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덧붙임

난다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미안함을 넘어서니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오세범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우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침몰하는 세월호 창문을 통해 절규하는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진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어 간다.

은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진상규명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발족되어 힘들게 진행하고 있으며, 선제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모사업은 아직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국가배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성금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며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여 과실없이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경고적,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진다. 특히 국가배상 책임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특별법으로 위에 덧붙여 행정통제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월호 참사 또한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이 결합된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자에게는 소송없이 일정금액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청금원 수령시 화해조항에 따라서 일체의 다툼은 배제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준 금액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기준으로 1억 원의 위자료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단순한 교통사고는 다르지 않은가? 일각에서는 신청금액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최고금액인데 왜 국가배상 소송을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집단 재난에서 국가배상은 단지 금전상 손해전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진실규명, 정의(가해자 처벌), 배상, 제도 개혁(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목표 속에서 추진되어야 그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각종 안전규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해운 청해진 해운의 과실과 규제탄속을 소홀히 하고, 재난발생시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국가의 과실 및 나아가 진상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매도한 불법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배상신청 및 수령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게 된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형사재판,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문점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그 실익은 피해자들이 직접 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증, 감정, 증인신청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진상규명에 접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참사 및 그 이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경우 적정한 위자료를 통하여 판례를 바꿀 여지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국가배상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전 사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덧붙임

오세범 님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들의 권리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자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미안함을 넘어서니

혜원

트윗

좋아요 66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1.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미안하지 않았다. 수면 아래로 점점 사라져 가는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답답해하기도 했고,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을 땐 남들처럼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미안함'이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중 다수가 단원고 학생들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온 국민들이 '지켜주지 못해 떠난 꽃 같은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토로했지만, 나는 정말로, 누구에게 무엇을 미안해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온 나라를 뒤덮은 '미안함'의 물결에 마음을 보태지 못하던 나는 나의 공감능력을 매번 의심해야 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으로, 혹은 '꽃 같은 아이들의 죽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해할 때 부모의 지위를 가져보지 못한 나와 청소년들을 '꽃'으로 호명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 슬픔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 느꼈다. 그렇게 사실 난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해야 할 것만 같은 불편함과 함께, 아프고 절망스럽지만 그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끌어안고서 참사 이후 1년을 보내왔다. 그러던 중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드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청소년-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 내가 선언에 어떤 고민들과 목소리를 보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몇 번의 토론회와 회의에 참여하고,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잊지 않겠다'던 다짐을 애써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과 둘러앉아 저마다가 꿈꾸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세상'의 밑그림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모습도 그려가면서 조금씩 명확해진 것 같다.

#2.
세월호 참사를 나의 문제로, 내 운동의 과제로 이해하려 애쓰고 나니, 이 비극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괴롭혔던 복잡한 감정의 뿌리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실패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수많은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명백한 청소년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프고 절망스러웠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따위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 뒤섞여 있다면, 참사의 발생 원인도, 사건의 성격도, 피해의 맥락도 역시 단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던지고 싶은 질문도 자꾸만 늘어갔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담보로 과적과 불법충적이 이루어지고 일말의 안전조치들조차 지켜지지 않던 세월호와, '대학입시의 성공'이 마치 수행해야 할 유일무이한 목표인 양 학생의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학교현장은 지독하게도 닮아있었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세월호의 '위험한 항해'를 용인해왔던 세상은 교육현장에서조차 '살벌한 경쟁'을 용인하고 부추긴다.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무능한 국가는, '청소년 학업성취도 최상위국'의 타이틀을 뒤킵잡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1위와 행복도 최저'라는 현실 속에서 수없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야 할 학생들 역시 구조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참세상)

#3.
청소년들의 '에도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사실상 또다시 청소년들에게 '가만히 있기'를 강요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다니며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느 학교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다. '원래 단원고 대신 우리 학교가 그때 세월호 타고 수학여행 가려고 했었대요.' 정말로 해당 학교에 그럴 계획이 있었는지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학생들이 들려주는 저 문구에서

매번 이 참사의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어떤 ‘공포’를 읽었던 것 같다. 이번엔 아니었지만 다음번엔 ‘나’일지도 모른다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 ‘역시’ 쉽사리 생존을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만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 그래서 청소년들이 온전한 애도의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비단 ‘노란 리본’조차 마음 놓고 달지 못한다는 현실에 그치지 않는다. 나의 삶과 별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내던 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비극을 목격하고, ‘나’의 생존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두려움을 가감 없이 내보이고 쏟아내면서 역설적으로 위로받고 치유할 기회를 빼앗은 것이기도 하다.

애도는 기본적으로 산 자의 행위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거나 참사를 야기한 사회적 영역들에 대한 변화와 성찰을 요구하는 행위들 역시 ‘애도’의 한 갈래라고 생각한다. 떠난 자들의 삶 혹은 죽음이 던지는 의미들을 산 자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보다 더 강력한 ‘기억하기’의 방식은 없다고 믿는다.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벌점과 징계로 학생들을 겁박하지만, 이 온전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지금의 학교와 교육은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간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비록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로 표현될지라도,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그게 전부이기도 하고.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 현실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은 그 공간 속에서 가장 밀박당의 대접을 받는 청소년들이다. 온몸으로 학교 역시 안전하지 못하며 언제 침몰할지 모른다는, 그래서 ‘나’의 삶과 존엄이 위태롭다는 증언을 매일 같이 온몸으로 던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학여행 금지’나 ‘안전수영교육 확대’ 같은 알파한 대책들이 아니라 이 증언들에 더 귀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이고 반성이다. 온전히 애도할 수 없고 문제를 직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두고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과 학생 희생자들을 호명하는 방식이 ‘퍼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꽃’과 같은 말에 갇혀있을 때 청소년은 ‘오늘’을 살아가는/던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마냥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을 유예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그치게 된다. 또한 학생 희생자의 죽음이 참사의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고정되어버린 상황은 그들의 삶만큼이나 존중받아야 할 ‘죽음’의 의미 역시 훼손하고 만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말이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말인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참사의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훼손되는 순간, 성찰의 영역도 대안의 방향성도 축소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남은 자들이 져야 할 책임은, 선장으로 대변되는 나쁜 어른들이 이 비극을 교훈 삼아 착한 어른들로, 그 개별적 도덕성의 회복이 아니라, 보다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의 추구이다. ‘착한 어른’들이 지켜줄 때만 가능한 권리와 안전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더 많이 되물어야 할 때다. 청소년 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대접받아야 하며, 그렇기에 마냥 보호받아야 할 ‘꽃’이 아닌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이면서 동시에 세월호 참사 이후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한 축이기도 하다.

#4.

사실 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는 나’ 사이에 어떤 넘지 못할 벽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늠하지 못하고 쉽사리 공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슬픔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슬픔 앞에선 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절망감도 늘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늘 그 벽을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다. 벽 너머 서로의 존재를 당장 확인할 길이 없어 마냥 벽을 더듬으며 서성거리고만 있을까봐 애가 났다. 함께 하고 싶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래서 이 참사를 떠올리며 슬퍼해야 할 것 같을 때마다 나의 불편함이 무색해지기도, 나는 내 동생의 얼굴을 수없이 떠올렸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자식을 잃은 부모 슬픔’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도저히 이 뿌리 깊은 절망감과 슬픔을 가늠할 길이 없어 나는 자꾸만 내 동생을 끌어들이었다. 세월호 희생자의 위치에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의 존재를 대입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해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참사가 불러온 압도적이고 거대한 비극 앞에서 두 발이 뚱뚱 뚱뚱인 것 같은 절망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동생이 이 참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고 이 모든 비극이 ‘나’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위안을 받았다. 그 안도감이 못내 죄스러웠지만, 오로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비겁했고, 무례했다. 세월호 참사를 내 삶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나니 세상이 더 무섭고 지긋지긋해졌지만, 끝없는 절망감과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사이를 한없이 헤매던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물론 나는 여전히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헤아릴 수 없다. 딱히 벽을 넘는 것 같지도 않다. 그저 지금 내가 발 딛고 선 이곳에서, 나의 감각과 나의 고민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고 더 많이 기억하려고 애쓰고 싶을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겪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한 경험과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이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덧붙임

해원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들의 권리다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재난시대의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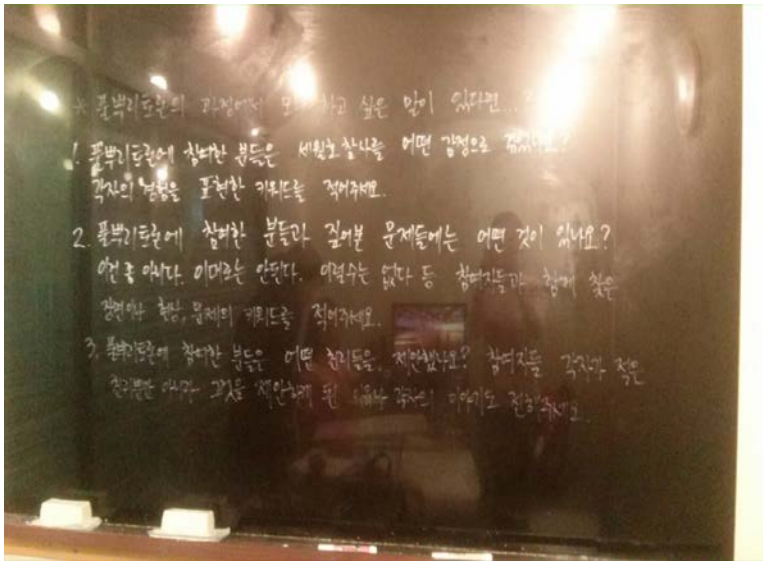
[웹진7호] 4.16 인권선언 운동 활동일지(9월~10월)

by 인권선언416 posted Oct 14, 2015

[웹진7호] 4.16 인권선언 운동 활동일지(9월~10월)

★ 2015.9.5 수원지역 풀뿌리 토론 @ 다산인권센터,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6명 참석

★ 2015.9.8 개인추진단 풀뿌리 토론 @서울대입구 스테디카페 에이지스토리/ 건대입구 롯데백화점 내 엔젤리너스 카페, 5명 참석



★ 2015.9.11 416 인권선언과 용인 시민 활동 토론회 @용인 동천동 파지사유 카페,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의 모임' 30명 참석



★ 2015.9.11 제정위 전원회의

★ 2015.9.12 진보넷활동가 풀뿌리토론 @참세상 회의실, 5명 참석

★ 2015.9.14 수원지역 풀뿌리토론 @수원여성회 장안·팔달구 분과모임, 장안·팔달구 분과원 5명 참석

★ 2015.9.15 녹색당 고려대모임 풀뿌리 토론 @고려대 근처 카페

★ 2015.9.1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풀뿌리토론 @철폐연대 사무실, 8명 참석



★ 2015.9.16 국제민주연대 풀뿌리토론 @국제민주연대 사무실, 3명 참석

★ 2015.9.18 운영팀 1차회의

★ 2015.9.20 보건의료학생 매듭 풀뿌리 토론 @아주대학교, 6명 참석



★ 2015.9.20 세월호 인권선언 고양시 동녘교회 풀뿌리토론 @고양시 동녘교회



★ 2015.9.21 수원지역 풀뿌리토론 @카페 세븐데이즈, 수원여성회 권선분과원 5명 참석



★ 2015.9.22 충북지역 축진자 풀뿌리토론, 5명 참석



★ 2015.9.23 4.16 인권 선언 풀뿌리 토론회 @ 서울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실, 9명 참석



★ 2015.9.23 나우학교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나우학교, 나우학교 중고학생들 18명과 정진섭추진단



★ 2015.9.23 수원 칠보춧불 풀뿌리 토론 @ 수원시 금곡동 북카페 '마실' 7명 참석



★ 2015.9.24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장애인회원 8명 풀뿌리 토론 @창원



★ 2015.9.24 기획팀 1차 회의 4명

★ 2015.9.30 은평지역 풀뿌리 토론 @은평구 상상허브,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회원기관 사람들 7명 참석

★ 2015.9.30 유엔인권정책센터 풀뿌리 토론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 등 4명 참석



★ 2015.10. 1 점검팀 회의 4명 참석

★ 2015.10.5 416연대 운영위 보고

웹진 7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서약활동일지
9월 ~ 10월